

성 예로니모스 수도자 (축일 6월 15일)

(28/6/2020)

교회는 6월 15일에 여러 성인을 기념하면서 특히 교회가 분리되기 전에 동서방교회를 하나로 연결하는 데 공로가 있는 성 예로니모스를 기억하면서 축일로 지냅니다.

성인은 347년 달라티아에서 태어났으며 (오늘날 Grahovo polje Slovenia) 부모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성인을 로마로 보내 훌륭한 스승들로부터 라틴어와 그리스 철학과 문학 그리고 웅변을 배우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프랑스의 트레비라와 아키릴리아 그리고 시리아의 안티오키아에서 공부를 이어갔고, 콘스탄티노플에서는 신학자 성 그레고리오스에게,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디디모스(스승이 장님이었음) 선생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성인은 이런 과정을 거쳐 다양한 학문을 수학했고 5개 국어에 능통했습니다. 로마의 다마스스 총대주교는 382년 로마에서 열린 공의회에 예로니모스를 관리 책임자로 초청했으며 성인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성 예로니모스는 예루살렘 성지에서 어떤 강렬한 힘에 이끌리는 체험을 한 후에 이집트의 니트리아 사막에 거주하는 어느 은둔 수도자 곁에서 수련 생활을 한 후, 386년 베들레헴에 정착했습니다. 성인은 그곳에 두 개의 수도원을 설립했습니다. 하나는 성인이 수도원장을 한 남자 수도원이었고 다른 한 곳은 영적 아버지로서 지도한 수녀원이었습니다. 성인의 영적 인도로 수도자들은 수련하면서 영적 서적들을 연구하고 저술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성인은 다작을 한 교회의 저술가였습니다. 로마의 다마스스 총대주교의 요청으로 성서를 라틴어로 번역함으로써 서방교회에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 번역본 성서는 서방교회에서 공식 인정되었습니다. 성인의 중요한 업적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것은 사도 베드로부터 시작하여 135명의 교회 중요 작가들의 작품과 그들의 생애를 다룬 저서를 남겼다는 점입니다. 성인의 수많은 저서에 대해 로마인 카시아노스는 평하기를 "진심으로 예로니모스는 정교회의 학자이다. 그의 저서는 신성한 초처럼 밝혀져 있고 달빛처럼 빛나고 있다. 동방에서 서방까지 태양의 광선처럼 빛나고 있다."라고 극찬했습니다. (흐로니콘 책에서 발췌, 아미아누 마르켈리누 작가)

성 예로니모스 수도자는 420년 6월 15일에 베들레헴에서 안식했습니다. 서방교회는 성

암브로시오스, 성 아우구스티노스 그리고 성 대 그레고리오스 대주교와 같은 반열의 교부 중의 한 분으로 성인을 시성했습니다.

성 예로니모스는 자신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주제인 구원에 관해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자율성'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영적 투쟁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신 십자가의 희생으로 흘러나온 주님의 은총은 신비의 세례성사와 견진성사, 감사의 성만찬, 고백성사 그리고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거룩한 활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교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성 예로니모스는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p.XV, Pros Danason 2, PL 22,335).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날까지 우리 정교회는 말씀과 저서를 통해서 성 예로니모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성인의 가르침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교부들의 저서 중에서 특별히 성 예로니모스의 비범한 가르침인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정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여러 이유를 들어서 교회와의 관계를 스스로 단절시키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고백성사를 하지 않고, 성체 성혈을 받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어떤 관계도 유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고 성서에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각자가 교회의 일원이며 그리스도 몸의 일부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두 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우구스티노스 성인은 말하길 "교회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와 함께 존재하며 영원히 퍼져 나갑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함께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교회 밖에서 머무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와 자신의 삶을 단절시킨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머니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어머니가 모유로 아기를 자라게 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자녀들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만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간직하지 못할 것이다."(요한 6:53) 성체 성혈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죽은 목숨입니다.

영적인 안전을 위해 교회의 거룩한 교부들의 가르침을 지켜나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인간이 마음대로 지어낸 거짓 사상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합시다. 교회의 거룩한 교부들의 조명된 가르침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한 교부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